

- 주요 뉴스: 미국 1월 근원 자본재 수주 및 잠정주택판매, 예상치 상회, 경기회복 지속 시사
 - 연준 제퍼슨 이사, 서비스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이지만 향후 둔화될 가능성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 ECB의 추가 금리인상 지지. 고물가 안내할 필요
 - 일본은행 차기 총재 지명자, 완화적 통화정책은 부작용보다 혜택이 큰 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전망 및 건조한 경제지표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저가매수 유입, 기술주 강세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및 레저관련주 강세 등으로 1.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 하락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6%,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 동안 가격 하락이 과도하다는 인식 등이 영향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11년 7월 이후 최고치

※ 원/달러 1M NDF환율(1316.69원, -6.3원) 0.4% 상승, 한국 CDS 보합

		2/27일	2/24일	전일대비			2/27일	2/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82.2	3,970.0	0.31%	국채 금리 10y	미국	3.91%	3.94%	-3bp
	유럽	462.58	457.70	1.07%		독일	2.58%	2.54%	4bp
	중국	3,258.0	3,267.2	-0.28%		영국	3.81%	3.66%	15bp
	일본	27,424	27,453	-0.11%		CDS 5y	한국	45bp	45bp
	한국	2,402.6	2,423.6	-0.87%	위험 지표	중국	71bp	74bp	-3bp
	달러지수	104.66	105.21	-0.53%		EMBI+	-	383	-
환율	유로화	1.0609	1.0548	0.58%		VIX	20.95	21.67	-3.32%
	엔화	136.19	136.48	0.21%		WTI유	75.68	76.32	-0.84%
	위안화	6.9441	6.9601	0.23%	원자재	구리	400.7	395.2	1.39%
	원화	1,323.0	1,304.8	-1.38%		금	1,817.1	1,811.0	0.3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월 근원 자본재 수주 및 잠정주택판매, 예상치 상회. 경기회복 지속 시사

- 1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비 4.5% 감소하여 작년 12월(-3.6%) 대비 부진. 하지만 이는 작년 12월 Boeing의 대규모 수주에 따른 착시 현상. 오히려 근원 내구재 수주는 전월비 0.7% 늘어 예상치(0.1%) 상회. 기업 투자지표로 인식되는 근원 자본재 수주 역시 0.8% 증가하여 예상치(0.0%) 대비 높은 수준
- 한편 1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8.1% 늘어 작년 12월(1.1%)과 비교 시 큰 폭 증가. 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모기지 금리 등에 기인하며, 주택경기는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하고 이후 점차 개선될 전망(NAR의 Lawrence Yun)
- 이번 결과들은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1/4분기에도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 한편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가 미국채 금리상승 및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날은 국채금리가 하락(10Y: 3.91%, -3bp)하고 주가는 상승(S&P500: 3982.2, +0.3%)
- 그 동안 투자자들은 경기회복에 따른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에 주목. 하지만 이날의 경우 투자자들은 당장 3월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미국 경제를 바라보기 시작(Federated Hermes의 James Rutherford)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제퍼슨 이사, 서비스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이지만 향후 둔화될 가능성

-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지만 임금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있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또한 주거비용 상승세 역시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 한편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를 상향 조정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

■ 유로존 1월 은행대출 증가율, 3개월 연속 하락. 금리 상승 등이 원인

- 1월 은행대출은 전월비 6.1% 증가하여 작년 12월(6.3%) 대비 낮은 수준. 대출금리 상승 전망으로 인한 대출 수요 약화가 주요 원인. ECB의 통화긴축 노력이 통화공급 및 민간부문 대출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향후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전망(ING의 Bert Colijn)

■ EU와 영국,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

-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영국 수석 재무장관은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원저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 이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 섬 사이의 원활한 교역이 보장되며,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및 보조금 등은 영국 정부가 결정할 방침. 또한 영국은 EU의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 ECB의 추가 금리인상 지지. 고물가 인내할 필요

- 부치치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ECB는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 다만 상당 기간 이와 같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를 인내해야 한다고 부연

■ 중국 2월 신규주택판매, 전월비 급증. 경제활동 재개 등에 기인

- 민간 부동산연구소 China Index Academy에 따르면, 2월 신규주택판매는 전월비 31.9% 늘어 1월(-34.3%) 대비 증가 전환하며 큰 폭 증가. 작년 11월부터 지속된 당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 노력이 실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일본은행 차기 총재 지명자, 완화적 통화정책은 부작용보다 혜택이 큰 편

- 우에다 지명자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그에 따른 부작용보다 크다고 발언. 이는 단기간 내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 다만 분명한 물가상승 신호가 나타난다면 현행 정책의 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

■ 골드만삭스, 향후 원유 공급부족 심화될 전망. OPEC+는 공급확대에 나설 가능성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와 주요 산유국의 현행 공급수준 유지 등으로 원유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진단. 이에 OPEC+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시카고 PMI,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 미국 '22년 12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1월 상품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최근의 자산가격 상승, 에코버블일 가능성에 주의 - Financial Times

(The markets are alive with the sound of echo bubbles)

- 최근 증시에서 기술주 급등으로 지난 10년의 호황이 돌아왔다는 낙관론이 대두. 그러나 이번 급등은 고전적인 '에코버블(큰 거품이 발생했다가 일시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소형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꺼지는 상황이 메아리처럼 반복)' 현상일 소지
- 과거 자산가격의 버블 붕괴는 대부분 통화긴축에 의해 촉발 되었으며, 고점 이후 3년이 지나거나 고점 대비 75% 하락한 시점에서 종료. 특히 역사적 수준의 장기 버블 붕괴가 진행되는 경우 최대 4차례의 에코버블이 발생
- 에코버블은 종종 반복적으로 잘못된 희망을 되살리며, 지금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화. 그러나 역사는 지난 10년 동안 버블이 발생하지 않았던 섹터와 주식에서 수익률이 더 높을 것임을 시사

■ 중국의 장기성장 둔화 전망,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 Financial Times

(The implications of China's mid-income trap)

- 과거 오랫동안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그러나 IMF는 중국의 '28년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 가능성을 시사.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공기업 및 부동산 등 장기적 성장과 관련이 적은 부문에 대한 투자집중과 그에 따른 생산성 약화 등에 기인
- 다만 중국은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감소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에 나선다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성장이 가능. 만일 중국의 성장둔화가 지속된다면 과거와 같이 세계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미국의 인플레이션 제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 - Financial Times

(It is time for the US to upgrade its fight against inflation)

- 연준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는 지속될 우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물가 불안, 경기하강, 고용감소, 소득 불평등 등 복합적인 위험을 촉발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의회 등 여타 정책당국과의 공조가 중요. 구체적으로 연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부 의견 도입을 고려할 필요. 또한 공급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 중국의 페트로위안 추진, 중동국가들의 관심은 적은 편 - 블룸버그

(The Myth of the Inevitable Rise of a Petroyuan)

- 외교에서는 종종 표현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중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작년 12월 사우디 국왕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 관련 아이디어는 언급을 자제
- 페트로위안의 도입과 이에 따른 페트로달러의 붕괴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도미노가 될 수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료들은 유동성, 주요국 통화의 달러 연계 등을 감안하여 반응이 뜨겁지 않은 상황
- 또한 과거 페트로달러를 대체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으나 미국 달러화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 이를 고려 시 향후에도 페트로달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 '전환기 팀'의 성향을 나타낼 전망 - 블룸버그

(New BOJ Governor Is 'Team Transitory.' Get Used To It)

- 우에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는 최근 중의원 청문회에서 통화완화 정책의 적절성, 향후 인플레이션 하락 전망 등 현 구로다 총재와 유사한 시각을 고수하여 향후에도 기존의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다만 상황에 따라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
-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보다 한동안 조용하고 실용적인 총재가 좋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우에다 지명자에게도 향후 반드시 시험이 올 것이며 그 때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 금융시장,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경로에 좌우될 소지 - Financial Times

(2022 never ended)

■ 미국 기업, 금리상승 영향으로 금년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설 가능성 - WSI

(Corporate Stock Buybacks Help Keep Market Afl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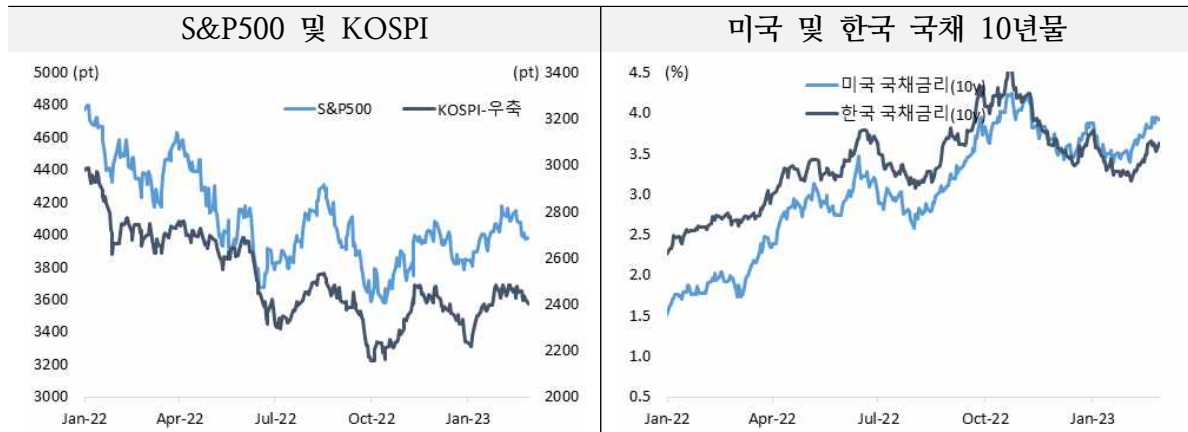
■ 미국 채권, 주식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등으로 투자기회 제공 - WSI

(Markets History 101: It's Time to Buy Bonds)

■ 미국 연준과 기관투자자, 금융여건 관련 이견 지속 - 블룸버그

(The Fed Doesn't Care About Wall Street as Much as Wall Street Think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